

www.woodplanet.co.kr

삶의 가치를 기억하는 나무매거진 - 12 2013 우드플래닛

# WOOD

P L A N E T



차가움이 따뜻함을 부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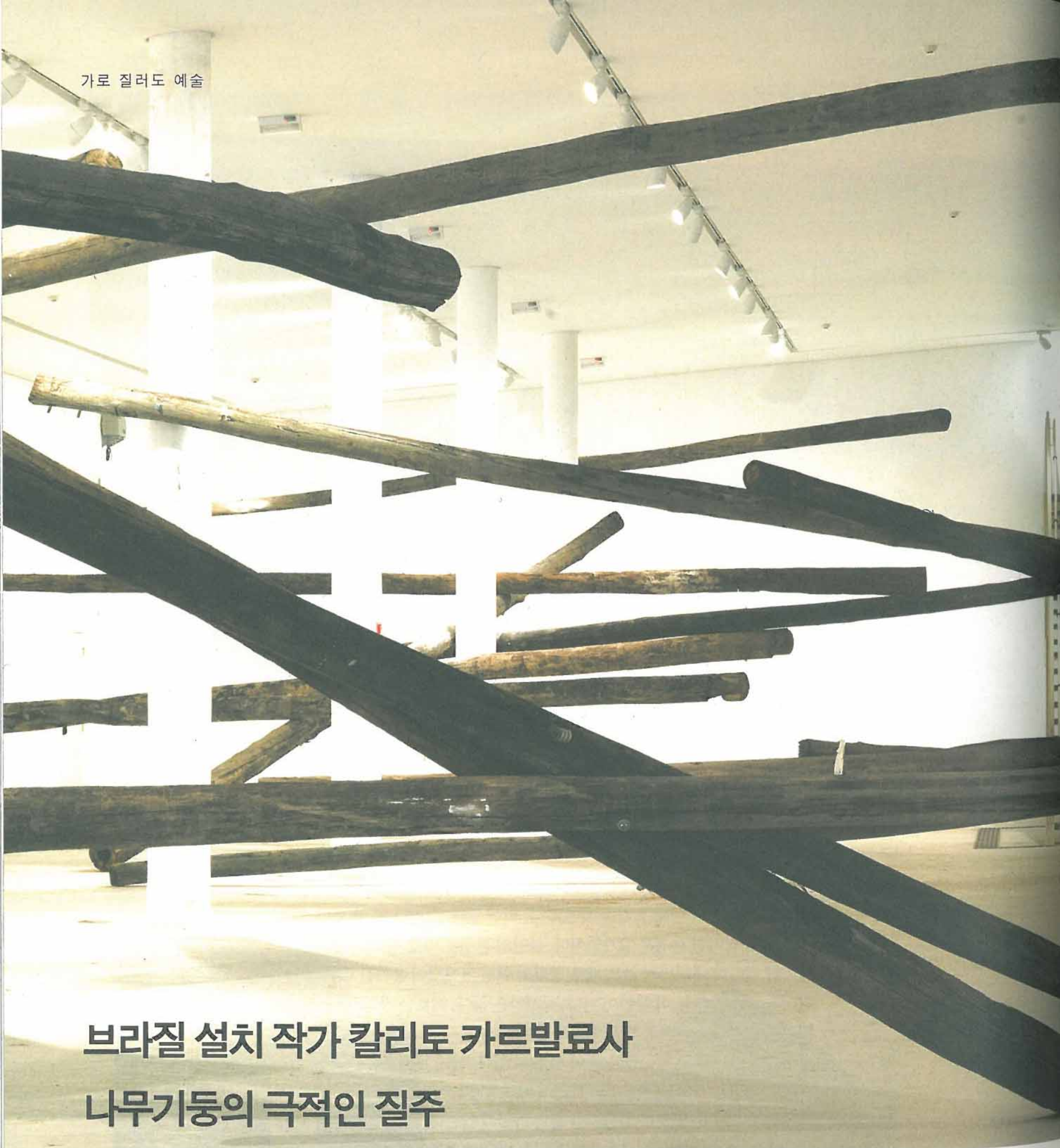
2013 베스트셀러 우드퍼니처  
2013 주목할 만한 나무소품  
내 아이를 위한 나무자전거  
잘 생긴 가구디자이너 문승지  
모든 길은 파티오로 통한다  
불안한 나무 조각가 신명덕

정가 12,000원



9 772234 780003 12

ISSN 2234-7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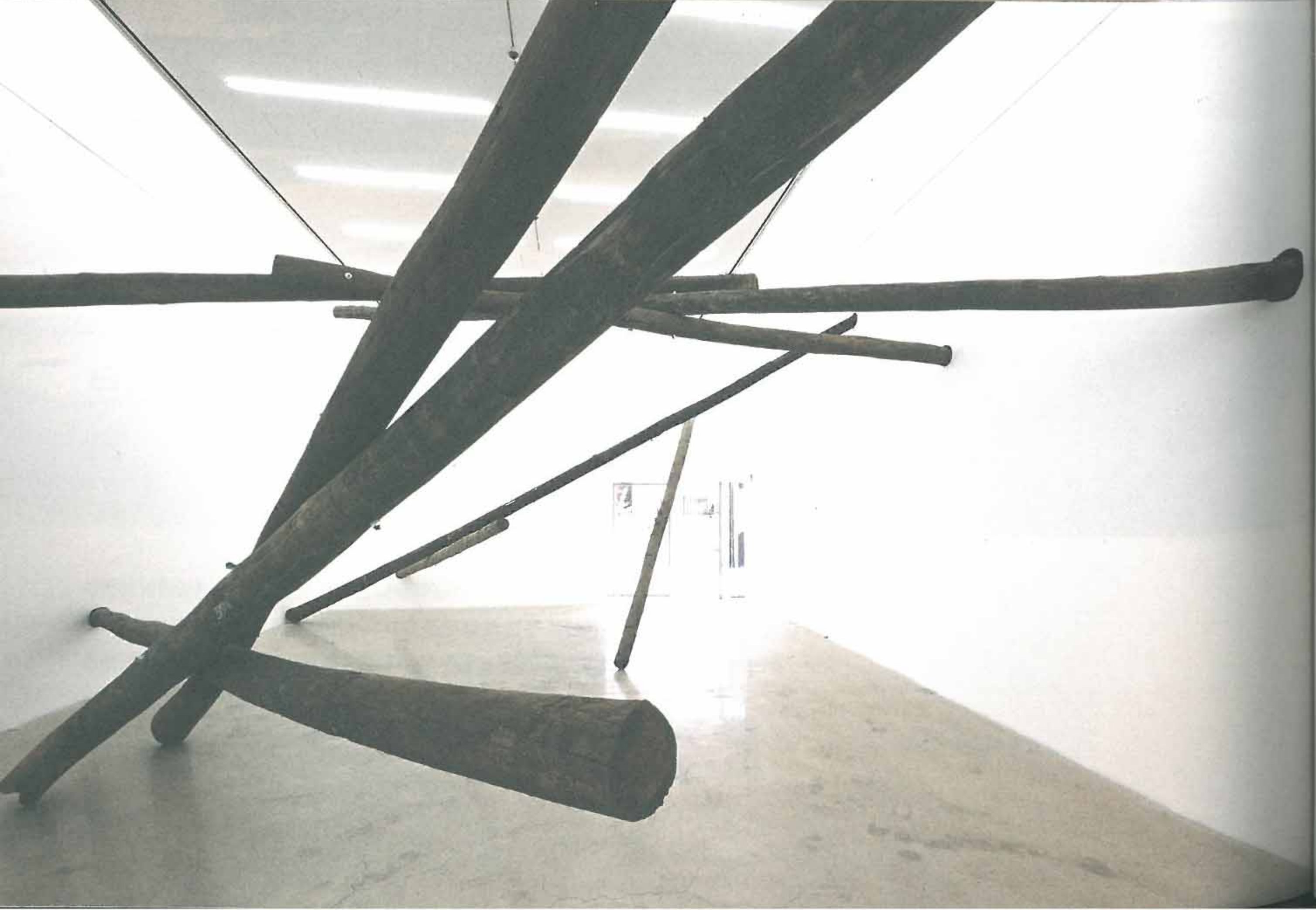


## 브라질 설치 작가 칼리토 카르발료사 나무기둥의 극적인 질주

사방이 막혀있는 새하얀 공간. 거대한 나무기둥이 저마다의 방향으로 곧게 뻗어 있다. 제한된 공간에 나무기둥을 설치했지만 일방적으로 매달아두지 않은 탓인지 쪽 뻗은 직선이 주는 명쾌하다. 벽을 뚫고 나와 오히려 시원한 기분마저 들게 한다. 시선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 보자.

글 이인혜 기자 | 사진제공 국제갤러리





지난 10월 국제 갤러리에서 브라질 작가 칼리토 카르발료사(Carlito Carvalho)의 한국 첫 개인전이 열렸다. 그는 국제 갤러리 공간을 특별하게 탈바꿈시켰다. 전시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크기의 나무기둥이 시선을 붙잡는다. 자유로운 모양새로 허공에 매달려있는 모습은 감탄사를 절로 불러일으킨다.

### 익숙한 것들에 대한 어색함

상파울루 대학의 건축 및 도시학과에서 건축학위를 받은 칼리토는 제약된 공간을 끊임없이 재해석해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그는 건축적으로 계획된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시키면서 관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대규모의 오브제부터 일회성의 직물에 이르기까지 재료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작품에서 새롭게 구현되는 재료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변형시키며 보는 이로 하여금 미묘한 혼돈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는 낯설게 하는 방식을 작품에 반영하되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재료의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려 한다. 복잡한 변형은 재료가 가진 본래의 물성을 해치고 본질을 이해하는 데 혼란만 준다.

### 벽을 뚫고 드러누운 나무기둥

칼리토는 하늘을 향해 뻗어있던 나무기둥을 사방이 가로막힌 실내로 끌고 들어왔다. 8~12미터의 육중한 나무기둥을 실내에 부러놓다니. 그는 가로등이 본래 가지고 있던 수직적 특성을 비스듬히 빗겨 매달아 제한적인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했다.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벽도 뚫었다. 나무가로등은 아직도 브라질 외곽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재료다. 하지만 그의 설치물을 본 사람들은 나무기둥의 옛 모습을 단번에 알아차리기 못한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그의 특기가 제대로 발휘된 것이다.

12개의 거대한 나무가로등은 망망대해를 건너왔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대한민국 서울까지. 그는 한국의 국제 갤러리에서 열리는 첫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서울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우리에게 익숙한 재료를 사용해 새롭게 구현해보려는 생각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시의 이름을 똑같이 두고 그 안에 담는 오브제만 바뀌면 전혀 다른 전시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상파울루의 전시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실'이란 뜻을 가진 '살라 드 에스페라(Sala de Espera)'를 구현해냈다. 전시의 느낌은 달랐다. 상파울루와 서울이 가지는 공간의 물리적 차이에서 오는 색다름이었다. 나무가로등은 본래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공간의 일부가 되었다. ㉞



칼리토 카르발료사(Carlito Carvalho) |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났다. 상파울루 대학의 건축 및 도시학과에서 건축학위를 받았으며 국제적인 전시 및 비엔날레에 다수 참여했다. 뉴욕 현대미술관,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 상파울루 현대미술관, 리우데자네이루 제국궁전, 라쿠엘 아르노 아트센터와 갤러리아 밀란 등에서 열린 전시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다. 그의 설치작품 '살라 드 에스페라(Sala de Espera)'는 상파울루 현대미술관 별관의 개관기념 작품으로 선정되었다.